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오후3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483장) 주 예수여 은혜를(486장)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36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종갑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빌립보서 4:11-13	인 도 자
설 교	자족(content)은 성도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양과봉헌	Hymn 495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이상준 조상익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선교사역	
양육사역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2.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 예배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목자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4. 우리교회는 일반재정의 50%를 선교 및 구제비로 사용합니다.(현재 적립금은 $1,505.00입니다.) 좋은 사용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00.00	
감사헌금:	$80.00	
주일헌금:	$1.00	
특별헌금:	$300.00	**합 계: $481.00**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믿음과 헌신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복주사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2006년 11월 12일 제15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예수를 믿는 목적은 누가 뭐라 해도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구원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구원 즉 천국의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값을 지불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을 소유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삶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항상 기쁘고 늘 평안한 구원의 삶 즉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속 썩는 세상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야 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문제는 육신을 지니고 사는 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물론 닥친 절박한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은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삶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으므로 가질 수 있는 평안은 이 땅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기에 평안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될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부자가 된 후에가 아니라, 지금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축복은 안정된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삶의 환경과 조건도 능히 뛰어 넘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저들의 삶이 남들과 달리 늘 좋기만 하고 성공적이기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은 어떠한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4: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이야 말로 기독교 신앙과 축복의 핵심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안정된 삶의 환경 때문에 믿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완전한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축복을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에 둔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천국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자족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은 자신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 자포자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환경과 처지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것을 뜻합니다. **빌4:12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이 사는 형편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제 각각인 형편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공평해 보이는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하신 축복은 자족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족함의 축복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도의 능력이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자족함의 축복을 무너뜨리기 위해 늘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비교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사단이 인간에게 행한 최고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늘 비교하게 합니다. 악한 사단은 늘 그리고 모든 것을 비교하게 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행복을 늘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비교해서 행복해 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하거나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비교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천국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자족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 타고난 환경이나 형편이 남들과 비교하여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불공평해 보이는 삶의 형편이나 조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세상에 주신 자족함의 능력을 배우기만 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영적비밀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구원은 죽음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있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495장 3절의 가사는 성도가 누려야 할 천국의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언제나 자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능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조건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능히 자족하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